

사랑스럽고독특하며고귀한합류시대브라민들의세계

오늘 브라민들의 창조자 아버지는 작고 아름다우며 알로킧한 그의 세계를 보고 있다. 이 브라민 세계는 심지어 황금시대의 세계와 비교해도 극히 사랑스럽고 독특하다. 알로킧한 이 세계의 브라민 영혼들은 참으로 고귀하고 특별하다. 이 브라민의 형태는 신인의 형태보다도 더 특별하다. 이 세계에 대한 칭송은 그 독특함에 대한 칭송이다. 이 세계의 영혼들은 모두 다 특별하다. 영혼들은 제각기 자아의 주군, 왕이다. 각 영혼은 의식의 킬락, 불멸하는 킬락, 자아-주권의 킬락을 가졌고, 신의 마음의 옥좌에 앉아 있다. 그래서 영혼인 너희 모두 왕관과 옥좌를 가졌고, 이 아름다운 세계의 킬락이 찍혀져 있다. 사이클 전체를 통틀어 너희가 이런 세계를 보거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느냐? 그것은 각 브라민 영혼이 동일한 아버지를 가지고 같은 가족에 속하며 하나의 언어와 지식을 가진 세계이다, 즉, 너희들은 삶에서 똑같이 고귀한 삶의 목표, 같은 태도, 같은 시선, 같은 종교, 똑같은 신의 카르마를 가졌다. 그것은 작은 만큼 사랑스러운, 그래서 오직 사랑스럽기만 한 세계이다. 이런 식으로 브라민 영혼인 너희들 모두 마음으로, “우리의 작은 세계는 독특하고 매우 사랑스럽습니다”라는 이 노래를 부른다. 너희는 이 노래를 부르느냐? 너희들은 합류시대의 이 세계를 보며 행복해지느냐? 그것은 참으로 독특한 세계이다. 이 세계의 하루 일정도 역시 독특하다. 너희에게는 너희의 왕국, 너희의 규율, 너희의 관습과 제도가 있는데, 그것들은 아름다운 제도이며 사랑도 역시 아름답다. 너희는 그런 세계에 사는 브라민 영혼들이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는 이 세계에서 살고 있지 않다, 그렇지? 너희가 너희들의 세계를 떠나 낯은 세계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이 브라민들이 누구인지 낯은 세계의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말한다: 브라마 쿠마리스의 모든 것은 그들만의 고유한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들 고유의 지식이 있다. 너희들의 세계가 새로우니 모든 것이 다 새롭고 독특하지 않겠느냐? 너희 모두 자기 스스로를 보아라: 너희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언어, 새로운 세계에 맞는 새로운 카르마를 가졌느냐? 너희는 이 정도로 독특해졌느냐? 낯은 것들 중에서 여태껏 남아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만일 오래된 사물들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것이 너희를 낯은 세계로 끌어당길 것이고, 너희는 고귀한 세계에 있지 못하고 저 아래의 세계로 내려갈 것이다. 천국은 높이 있기 때문에, 즉 고귀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저 위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지옥은 저 아래에 있는 것으로 묘사한다. 합류시대의 천국은 황금시대의 천국보다 더 높은데, 왜냐하면 지금 너희가 양쪽 세계 모두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알면서도 너희는 초연하며 사랑한다. 이런 이유로 마두반은 천국으로 경험된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기 원한다면 지금 보세요”라고 한다. 거기서는 너희가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너희는 도취감의 그 광채를 띠고, “우리는 천국을 보았네!”라고 한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만일 천국을 보고자 한다면 저희들에게 와서 보십시오”라고 도전한다.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그렇지 않느냐? 처음에는 너희가 천국의 천사들이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그런 말을 들었지만, 그들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천국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이제 너희들은 천국의 세계에 도달했다. 너희들은 천국의 천사가 되었다. 추했던 너희가 아름다워졌다. 너희는 이제 날개를 얻었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는 세 가지 세계를 모두 여행 할 수 있는 참으로 독특한 지식과 요가의 날개를 얻었다. 그렇게 빠른 속도의 이동수단은 과학자들에게도 없다. 너희들 모두 날개를 받았느냐? 아무도 거기에서 빠진 사람은 없을 테지? 이 세계에 대한 찬양은 브라민들의 세계에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아버지 한 분을 찾았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찾았습니다”라는 찬양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너희는

그저 하나의 세계뿐 아니라 세 가지 세계 모두의 주인이 되었다. 이 세계에 대한 기념물은 모든 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네를 타고 있다는 것이다. 그네를 타는 것은 행운의 표시로 여겨진다. 이 세계의 특징이 무엇이나? 너희들은 때로는 초감각적인 행복의 그네를 타고, 때로는 평화의 그네를 타며, 가끔은 지식의 그네를 탄다. 너희들은 신의 품에서 그네를 탄다. 신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은 사랑에 잠겨 있는 단계에서 그네를 탄다는 뜻이다. 너희가 품에 완전히 안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신의 품에 들어가서 사랑에 넋을 잃었다. 알로키한 이 품은 너희가 1초 만에 여러 생의 고통과 슬픔을 잊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든 그네를 타라.

너희는 꿈속에서도 그런 세계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느냐? 오늘 밥다다는 그의 사랑스러운 세계를 보고 있었다. 너희들은 이 세계가 맘에 드느냐? 너희들은 그것을 사랑한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가 가끔은 저 세계에 한 발을 내딛은 채, 한 발은 이 세상에 딛고 있지는 않는데, 그렇지? 너희는 63생 동안 이 세계를 보고 경험해왔다. 너희는 무엇을 받았느냐? 너희는 뭔가를 받았느냐 아니면 뭔가를 잃었느냐? 너희는 몸을 잃었고 평화를 잃었고 마음의 행복을 잃었으며 너희의 부도 잃었다. 너희는 온갖 관계들을 다 잃었다. 아버지가 준 아름다운 몸을 너희는 어디서 잃었느냐? 만일 너희가 돈을 모은다면, 그것은 검은 돈, 즉 부정한 돈이다. 순수하고 깨끗한 돈은 어디로 갔느냐? 너희에게 약간쯤 남아있다 해도 그것은 쓸모가 없다. 너희는 스스로를 백만장자라고 부르지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모든 것을 다 잃었고, 만일 너희의 지각이 여전히 끌린다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것이 지각이 있는 것이라고 불리겠느냐? 그러니 항상 너희들의 이 고귀한 세계를 지각 속에 간직하고 지내라. 이 세계에서 이 삶의 특징들을 끊임없이 의식 속에 담고서 강력해져라. 기억의 화신이 되어라, 그러면 너희가 자동적으로 애착의 정복자가 될 것이다. 낯은 세계의 그 무엇도 너희의 지각 안에 들이지 마라. 들인다는 것은 기만당한다는 뜻이다. 기만당한다는 것은 슬픔을 받는다는 뜻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디에 머물러야 하겠느냐? 고귀한 세계이나, 아니면 낯은 세계이나? 항상 저것이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차이를 의식 속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어서 간직해라. 앗차.

이렇게 작고 사랑스러운 세계에 살고 있는 특별한 브라민 영혼들에게, 변함없이 마음의 옥좌에 앉아 있는 영혼들에게, 한결같이 그네를 타고 있는 영혼들에게, 신을 사랑하는 한결같이 초연한 자녀들에게, 부디 신의 기억을 받아주기 바라며, 신의 사랑과 나마스테.

밥다다가교사들을만나심:

봉사자들은 버린 이들이며 타파스위 영혼이라는 뜻이다. 너희는 항상 봉사의 결실을 받는다. 하지만 너희들은 항상 버림과 타파샤를 갖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다. 항상 너희 스스로를 특별한 영혼이라 여김으로써 봉사하고 특별한 봉사의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목표를 간직해라. 너희의 목표가 더 강할수록 건물은 그만큼 더 강해질 것이다. 그러니 계속해서 너희 스스로를 봉사자라고 여김으로써, 늘 전진해라. 아버지가 너희를 선택했듯이, 그 다음에 너희는 너희들의 백성을 선택해야 한다. 언제나 장애 없이 되어서 봉사에도 역시 장애가 없도록 계속 자유롭게 만들어라. 모든 이가 봉사하지만 너희의 봉사에는 장애가 없어야만 한다. 너희는 이것에서 등수를 받는다. 너희가 어디에 살든 너희의 학생들 모두에게 장애가 없게 해라. 장애의 물결이 없게 해라. 분위기가 강력해지게 해라. 이것이 장애 없는 영혼이 되는 것이라고 불린다. 아무런 장애가 오지 못할 정도의 그런 기억의 분위기를 가지겠다는 목표를 세워라. 요새가 있는 곳에는 적이 올 수 없다. 이렇게 장애 없이 되어서 장애 없이 자유로운 봉사자가 되어라.

밥다다가여러그룹을만나심:

봉사하고 충족감을 차지해라. 너희는 단지 봉사해야 할 뿐 아니라, 충족감이 들어있으며 모든 이에게 축복 받는 그런 봉사를 해야 한다. 축복이 가득한 봉사는 너희에게 쉽게 성공을 준다. 너희는 계획에 따라 봉사해야 하며, 또 봉사를 많이 해야 한다. 행복과 열의를 갖고 봉사하되 반드시 “내가 한 봉사에서 나는 축복을 받았는가? 아니면 그저 열심히 일한 것 뿐인가?”라며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라. 축복이 있는 곳에서는 너희가 그것을 힘든 일로 느끼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는 누가 너희와 접촉해 오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계속 축복을 받겠다는 목표를 간직해라. 너희가 모든 이에게서 축복을 차지할 때, 너희들의 살아있지 않은 형상들이 반 사이클 동안 계속 축복을 줄 것이다. 그들은 너희들의 상에게서 축복을 받으려고 온다, 그렇지 않느냐? 그들은 신인들의 상에서 축복을 얻으려고 간다,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는 지금 이때에 모든 이에게서 축복을 차지하고, 따라서 너희의 형상들을 통해서 계속 축복해주는 것이다. 행사, 대회를 열고, VIP들과 IP들에게 봉사하고,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축복으로 가득한 봉사를 해라. (축복을 차지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 지”에 대한 교훈을 확실히 해라. 누구에게든 “아니오”라고 해서 그들이 용기를 잃게 만드는 일은 없게 해라. 비록 그들이 틀렸어도, 그 즉시 “당신이 틀렸습니다”라고 하지는 마라. 먼저 그들을 안심시키고 용기를 줘라. 그 사람에게 “네”라고 말한 다음에 설명해줘라, 그러면 그가 이해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즉시 “아니오”라고 하면 그들이 그나마 가졌던 약간의 용기마저도 끝날 것이다. 틀린 것은 틀린 것이지만 너희가 틀렸다고 얘기하면 그는 결코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그에게 “맞아요”라고 해서 그의 용기를 북돋아줘라, 그러면 그 사람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존중해 줘라. 단순히 이 방법을 택해라. 설령 그가 틀렸어도 제일 먼저 그가 좋다고 말해서 우선 그가 용기를 갖게 해줘라. 누군가 넘어졌다면 너희는 그 사람이 더 넘어지게 밀치겠느냐 아니면 그를 일으켜 세워주겠느냐? 제일 먼저 그를 지지해주고 그가 일어나게 만들어라. 이것을 가리켜 관대함이라고 한다. 계속해서 협조적이 될 이들이 협조할 수 있게 해줘라. “당신은 앞서있고 나도 역시 앞서있다”라고. 계속해서 함께 전진해라.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라, 그러면 성공이 있을 것이고 너희는 충족감이라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축복을 차지하는 데서 위대해져라, 그러면 너희가 자동적으로 봉사에서 위대해질 것이다.

봉사자들에게:

봉사하는 동안 너희 스스로 한결같이 카르마 요기 단계에 안정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느냐? 아니면 카르마를 행하는 동안에는 기억이 줄어들고 너희의 지각이 일에 더 몰입되느냐? 기억하며 머물면서 카르마를 행함으로써 너희는 결코 그 일에 피로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억하는 상태에서 카르마를 행하는 이들은 변함없는 행복을 경험한다. 너희는 카르마를 행한다, 즉 너희는 카르마 요기로서 봉사한다, 그렇지 않느냐? 카르마 요기가 되는 훈련을 쌓은 이들은 매 발걸음마다 자기의 현재와 미래를 항상 고귀하게 만든다. 미래의 계좌는 항상 가득할 것이고, 현재의 계좌는 항상 드높다. 너희는 그런 카르마 요기들이면서 봉사에 대한 너희의 배역을 연기하느냐? 잊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 마두반에는 봉사자들이 있으니 마두반은 자동적으로 너희에게 아버지를 상기시킨다. 너희들은 모든 보물의 계좌에 저축해놓지 않았느냐? 너희는 항상 가득한 상태에 머물 만큼 그렇게 많이 축적해두었다. 합류시대에 너희들의 배터리는 항상 충전되어 있다. 배터리는 동시대부터 약해진다. 합류시대에는 그것들이 언제나 가득하게 항상 충전되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배터리를 충전하려고 마두반에 온 것이 아니라 축하하려고 왔다.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 사랑이 있고, 그래서 서로를 만나 그의 말을 듣는 것이 합류시대의 축제가 가지는 역할이다. 앗차.

청년집회의성공에대한밥다다의고귀한말씀의축복:

너희는 청년 부문을 만들어도 좋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 그저 만족해라. 충족감과 성공이 있게 해라, 왜냐하면 이번 생은 봉사를 위한 생이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열성과 열의를 갖고 과제를 수행한다면 그건 문제가 안 된다. 프로그램이 있다면 너희는 그걸 해야 한다고 느끼는데, 그러면 그것이 어렵다. 그렇지만 만일 너희 스스로 열성과 열의를 갖고 뭔가를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누가 너희를 보든, 그것 안에 봉사가 들어있다. 그저 혼자 말하는 것만으로는 봉사가 아니니, 너희의 얼굴도 명랑하게 해라. 영적인 얼굴도 역시 봉사한다. 봉사하며 영적 행복의 광채를 보임으로써 열성과 열의를 갖고 행복하게 전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라. 어느 누구도 강압에 의해 봉사하게 하지 마라.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들이 그걸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들 스스로 열성과 열의를 갖고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좋다. 그건 좋다.

뭔가를 하려는 열성이 없는 이라 해도 그것을 해야 할 의무가 그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든 너희는 50주년 기념일 전에 모든 분야를 커버하겠다는 목표를 가졌으니 걸어서 집회에 참여하는 이들이 각자의 그룹대로 올 것과 마찬가지로 버스를 탄 이들도 역시 오게 해라. 그들은 여러 대의 버스로 모든 지역과 모든 분야에서 봉사하며 델리에 도착할 수 있다. 두 가지 유형의 그룹을 결성해라. 하나는 버스를 타고 도중에 봉사하면서 계속 오는 이들의 그룹이고, 다른 하나는 걸어서 오는 이들의 그룹이다. 그러면 그것이 2배가 될 것이다. 너희는 청년들이니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냐? 청년들은 에너지를 어딘가에 써야 한다! 그 에너지가 봉사에 쓰인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면 양쪽 모두의 의도가 충족될 것이다. 봉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가 이것을 “도보 대회”라고 불러왔으니, 그것도 역시 이루어질 것이다. 만일 모든 주들이 사전에 인터뷰를 미리 조정한다면 그 경우에는 그 소리가 자동적으로 퍼질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영적인 순례로 가시화되어야만 한다. 그저 도보 대회가 눈에 보이게만 하진 마라. 영성과 행복의 광채도 역시 있게 해라. 그러면 새로움이 보일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여는 집회나 대회처럼 평범하게 보이게 하지말고, 너희가 단순한 순례자가 아닌 2중의 순례자임이 보이게 해라. 너희는 기억의 순례를 하는 이들이고 도보 집회의 참여자이기도 하다. 만일 2중의 순례의 영향력이 너희의 얼굴에서 보인다면 좋을 것이다.

세계의정치지도자들에게보내는아비약트밥다다의신성한메시지: (1985년 12월 4일)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은 각자 자기 나라와 국민들이 발전하게 만들려는 좋은 염원과 순수한 느낌을 갖고 자기의 과업에 몰입되어 있다. 하지만 그들이 느끼는 바가 대단히 높다 해도 실제 증거는 있어야 할 만큼 없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가진 마음의 느낌, 봉사에 대한 느낌, 사랑의 느낌도 그렇고 지도자들 중 많은 이들 역시 이기적이고 질투하는 동기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 기반을 끝내기 위해서 그들은 물질의 힘, 과학의 힘, 세계 지식의 힘, 정부의 권위에서 나오는 힘을 갖고 많이 노력해왔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마음의 느낌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이다. 그들은 그것에 주의를 적게 기울이고, 그래서 변한 느낌들의 씨앗이 끝날 수 없다. 그것이 잠시는 억눌려 있지만, 때에 의해서 오히려 더 강렬한 형태로 드러난다. 이런 이유로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영혼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한결같이 너희 스스로를 영(영혼)이라 여기며, 영적인 아버지와 관계를 형성하고 그에게서 영적인 힘을 받아 너희 스스로의 마음의 지도자가 되어라. 그러면 너희는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남들 마음속 느낌들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마음속 생각들과 사람들의 실질적인 카르마가 갈라질 것이다. 이 두 가지의 협력으로 너희는 성공의 실제 증거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변함없이 자기 스스로를 지배할 권리를 가진 이들만이 왕국을 통치할 가치가 있는 영혼이 될 수 있으며, 그 자아-주권은 너희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너희에게 준,

너희들이 타고난 권리이다. 타고난 이 힘으로 너희는 한결같이 정의로울 힘도 역시 경험할 것이며 항상 성공할 것이다.

축복: 변함없이 강력한 영혼이 되어서 집회에서 너희의 목표와 그 자격여건이 같아지게 만들어라.

집회에서 서로 보면서 너희는 열성과 열의를 가질 수 있지만, 부주의도 역시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 나도 역시 그렇게 한다면 뭐가 문제겠어?”라고 생각한다. 이러니 고귀해지는 데 집회의 도움을 받아라. 어떤 행위를 행하기 전에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너희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고 모범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워라. “나는 이 일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남들에게 영감을 불어 넣어줘야 돼.” 그 다음에 이 목표를 거듭 부각시켜라. 이 자격요건에 너희의 목표를 계속 맞춰라, 그러면 너희가 강력해질 것이다.

슬로건: 최종시기에 빠르게 가기 위해서는 평범하거나 낭비적인 생각에 너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 **옴 산티 O M S H A N T I** ***